

시선 男과 女

블랙과 화이트,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남(男)과 여(女), 혹은 여와 남. '개취'(개인취향)일 뿐인 각기 시선에 성적(젠더·gender) 기준과 잣대를 들이댈 이유는 전혀 없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각자의 취향대로다. 두 남녀 기자가 매주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적어도 눈치 보는, '빨아주기'식 기사는 없다.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 담당기자들이 '갈 데까지 가보자'고 작심했다. 가장 공정하고 정정당한 시선을 유지하자며,



레드벨벳 '레드 서머'

●여름 시즌 앨범. 7월9일 발표. 5곡 수록.

●레드벨벳이 여름을 겨냥해 발표한 미니앨범 형식의 시즌 앨범. 시원하고 에너지 넘치는 레드벨벳의 매력을 잘 표현한 타이틀곡 '빨간 맛'을 비롯해 '유 베타 노' '주(Zoo)' '여름빛' '바다가 들려' 등 시즌 앨범답게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섯곡을 수록했다.

B급 문화까지 버무린 비교불가 매력



히트다 히트

자기만의 확실한 색깔이 있고 개성이 뚜렷하다는 것은 가수에겐 축복이다. 레드벨벳의 신작 '레드 서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들만의 매력을 확실하게 하는 앨범이다. '행복' '덤덤' '러시안 룰렛' 등 전작에서 기존 걸그룹 댄스곡과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준 레드벨벳은 이번 앨범에서 '병맛 코드'(B급 문화)까지 슬쩍 버무렸다. '노래가 뭐 이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그야말로 '취향저격'이다.

시즌 앨범이라 부담 없이 시도한 것인지, '레

드 서머'엔 실험적 요소들이 많다. 수박, 파인에 플, 포도 등 몇 가지 과일을 합성한 '저차원적' 재킷 사진부터 강렬하다. 타이틀곡 '빨간 맛' 뮤직비디오는 대형 과일과 인터뷰하는 멤버들의 진지한 표정, 아이돌계 새로운 '미의 여신'으로 떠오른 아이린의 화끈한 춤사위로도 웃음을 유발한다. '주'에서는 노래 중간 '아~아~아' 울리는 타잔의 추임새도 흘러나온다. 마치 MBC '무한도전'의 '무도가요제'에 출연이라도 하려는 듯, 공감과 재미가 함께 느껴진다. '유 베타 노'는 타이틀곡이 되지 않은 게 아쉬울 정도로 귀에 쏙 들어오는 곡이다.

걸그룹의 상급발랄한 매력을 표현하는 신조어인 '괴짜미'를 대놓고 강조하는 것도 재미를 주는 요소다. 여름철 과일을 대거 등장시켜 이를 강조하는 것이나, '빨간 맛'이란 노래 제목으로 레드벨벳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1차원적 마케팅은 은근히 설득력을 갖는다.

'레드 서머'는 전반적으로 뜨거운 여름, 드라마 이브하며 듣기 좋은 앨범이다. 차 밖으로 음악이 새어나가도 무방할 음악이다.

길어지는 애프렉스의 공백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레드벨벳은 애프렉스의 빈자리를 무색하게 해준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여름 시즌을 겨냥한 노래 '빨간 맛'은 걸그룹 레드벨벳의 도발적이기까지 한 이미지의 노랫말로도 귀를 끌어당긴다. 사진은 이들이 최근 공개한 새 앨범 티저 이미지.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강렬한 '빨간 맛'... '서머 퀸' 접수완료



히트다 히트

'포스트 씨스타!' 해마다 여름이면 통과의례처럼 찾아오던 씨스타는 이제 없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던 '언니들'의 빈자리를 신흥강자들이 눈독 들였지만, 소용없다. '서머 퀸'의 자리는 레드벨벳이 깔끔하게 접수했다.

지난해까지 미성년자였던 막내 멤버까지 이전 어엿한 성년이 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니다. 나이가 각자 지닌 매력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듯하다. 또 '오~래 가는 건전지 에너지'처럼 지칠 줄도 모른다. 평균 나이 22세의

상큼하고 발랄함이 앨범 전체에서 묻어난다.

그 맛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고 자꾸만 상상하게 되는, 타이틀곡 '빨간 맛'은 강렬한 여름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진다. 뜨거운 '여름'과 짜릿한 '사랑'의 감정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가사는 맹랑하다 못해 도발적이다.

'유 베타 노', '주' 등 5곡의 수록곡도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 수록곡마다 한 다스의 크레파스처럼 저마다 색깔이 다른데도 한 데 어우러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에서는 손대면 '톡'하

고 터질 듯한 청량감이 느껴진다. 장리를 가리지 않고 요즘 트렌드로 떠오른 과일 콘셉트를 멤버별로 비유한 것도 흥미롭다. 수박, 포도, 키위, 파인애플, 오렌지 등 저마다 달콤하고 새롭하지만, 도적으로 촌스럽게 표현한 것은 '신의 한 수'다. 그동안 발표한 곡인 '러시안 룰렛' '덤덤' 등이 '묘하고 독특해서' 호불호가 갈렸다면 이번엔 대중적인 '임팩'에 접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요즘, 곡의 완성도니 뭐, 이런 걸 떠나 톡 쏘는 여름 과일의 맛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다면 레드벨벳은 성공한 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평정아이콘, 이렇게 갑니다



히트다 히트

말이 필요할까요.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알송달송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시간과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서 배우로...설리, 한국판 에리카 될까?



김원경의 토크잡담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남들과 같은 모습도 유난히 튀어 보이는 설리(최진리·23)를 두고 일본의 미녀스타 사와지리 에리카(31)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초등학교 때 데뷔한 것이나, 가수 겸 연기자로 활약한 '스펙' 외에도 둘은 닮은 면모가 있다.

사와지리 에리카는 2005년 후지TV 드라마 '1리터의 눈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일본인 아버지와 알제리계 프랑스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외모와 청순한 매력, 연기력을 갖춘 20대 여배우의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다. 2006년 가수로 데뷔해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영화 '블로즈드 노트' 기자회견

전에서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했다. 22세 연상과 결혼했다 3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대마초 흡연 논란 등 각종 돌발행동으로 악동 이미지를 키웠다. 거침없는 언변과 자유분방한 모습에 호감을 표하는 이들 덕에 몇몇 광고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다.

설리는 그런 에리카에 비할 바 아니며 범죄 행위로 저지른 죄 없다. 다만 '이슈메이커'라는 관점에서는 닮았다.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얇은 옷을 걸친 사진을 SNS에 계속 올린 뒤 비난이 커지자 파격적인 '속옷 화보'를 게재한 모습에선 에리카 못지않은 '반항심'이 엿보인다. 입안에 생크림을 넣는 모습, 장어를 굽는 모습, 볶음밥에 계란 두 개를 올린 장면 등 사진에는 온갖 댓글이 달린다. '관중'(관심종자)이란 일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비난을 즐긴다'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고의



설리

적 행동'이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에리카의 돌발행동을 두고도 "새로운 캐릭터를 잡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란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대중의 호불호 속에서 에리카는 2012년 영

화 '헬터 스켈터'로 강력한 반전을 만들어냈다. 영화에서 그는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해 그해 일본 아카데미 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여배우로서 존재감을 새삼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정상급 배우로 인정받으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가고 있다. 물론 '기행'도 멈췄다.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가십거리인 설리가 최근 11살 연상의 회사원과 짧은 연애사로 다시 화제를 모았다. 누구나 하는 사랑과 이별이지만, 설리는 유난히 더 큰 관심과 '해석'을 낳는다.

설리는 최근 영화 '리얼'을 통해 배우로 관객을 만났다. 비중이 크지 않아 연기력을 평가하기엔 무리라는 시선도 있지만, 여배우로서 뭔가 앞날을 기대하게 했다는 평가도 많다. 사와지리 에리카처럼 설리가 앞으로 좋은 연기를 통해 배우로 거듭날지, 그저 이슈메이커로 남을지 지켜볼 일이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ymm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로이킴 '봄봄봄' 표절소송, 대법원 간다



로이킴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3년 8월 발표한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2년 '주님의 풍경에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표절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0년간 활동중단 나훈아, 17일 새 앨범 발표



나훈아

2007년 3월 콘서트를 갑작스럽게 취소한 후 활동을 중단해 의문을 낳았던 가수 나훈아가 17일 새 앨범 '드림 어게인'을 발표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남자의 인생' 등 7곡을 수록했다. 나훈아 측은 11일 "그동안 가슴에 담은 꿈들을 세상에 꺼내 놓은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 다치고 지쳐 있는 국민들께 큰 위로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음악임을 자부한다"고 소개했다. 연말엔 공연도 한다. 11월3~5일 서울, 11월24~26일 부산, 12월 15~17일 대구를 순회하는 일정이다. 나훈아 콘서트는 2006년 12월 데뷔 40주년 공연 이후 11년 만이다.

부천국제영화제 13일 개막...개막작은 '7호실'

연기자 장나라와 정경호가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 사회자로 나선다. 두 사람은 13일 오후 7시30분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BIFAN 개막식을 진행한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개막작인 '7호실'의 이용승 감독과 주연배우 신하균·도경수를 비롯해 배우와 감독 등 영화관계자들 대거 참여한다. 경쟁작인 '부천초이스' 장편 심사위원인 배우 김의성과 자신의 특별전을 여는 전도연, 판타스틱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스페인의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 등이 레드카펫을 밟는다. 이번 영화제에서 감독 데뷔를 알리는 차인표, 남궁민도 부천을 찾는다. 58개국 288편(월드 프리미어 62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13일부터 23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임시완 입대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

제국의아이들 출신 연기자 임시완이 11일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이라는 말을 소감으로 남기고 입대했다. 임시완은 이날 경기도 양주 2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입대 직전 부대 앞에서 자신을 배웅 나온 100여명의 팬들을 향해 "머리카락은 오늘 잘랐다"면서 "군 입대는 밀린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다.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임시완은 5주간의 신병교육을 받은 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영화 '대립군', 드라마 '파수꾼' 등에 출연한 연기자 조동민도 이날 경기도 양주 26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했다.

음악 랭킹

자료:멜론
7월 3일~7월 9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
2	널 너무 모르고	헤이즈
3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
4	남이 될 수 있을까	불빨간사춘기, 소수설
5	마지막처럼	BLACKPINK
6	무제	G-DRAGON
7	처음부터 너와 나	불빨간사춘기
8	FIVE	Apink
9	Shape of You	Ed Sheeran
10	매일 듣는 노래	황치열

편집 | 최혜경·김청호 기자